

2019세계수영 北 참가 추진...평양 발효콩 제2공장 설립도

광주시·전남도 남북교류 협력사업 뭐가 있나

2년 1개월 만에 단절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진행되는 등 남북 화해 분위기 속 광주시와 전남도의 남북교류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15년 광주세계유니버시아드에 북한 대표단을 초청하려다 무산됐고, 전남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북한관 부지를 마련하는 등 북한 참여를 추진했지만 무산되는 등 눈에 띄는 남북교류 사업이 없었다.

이에 따라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 각종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 남북교류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광주형 남북교류 모델 만든다**=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 사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북한 선수단 참가 여부다. 광주시는 2015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에서도 북한에 참가를 구애했지만 성사시키지 못했다. 당시 광주시는 북한 선수단 참가를 위해 범정부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정권 등의 무관심으로 힘을 얻지도 못했다.

이에 광주시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 남북실무 접촉도 고려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가

광주비엔날레 北참관단 초청

문화전당 북한 문화 특별전

산모·영유아 2000명예

이유식 쌀·미역 보내기 운동

할 경우, 광주시는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최근 북한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비용 지원이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는 등 대형 국제대회의 북한 참가는 비용 마련도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광주시가 사전에 남북협력기금 활용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광주시는 또는 제3국에서 광주시와 다른 나라에서 남북한 양공선수단이 합동 전시훈련을 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광주시 양공선수단이 참가하는 이 전시훈련은 올 하반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문화 분야의 남북 교류도 예정돼 있다. 올 하반기에 열리는 광주비엔날레에 북한 참관단을 초청하고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북한 문화 특별전시전을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치색이 얹은 동양화, 도자기, 유물 등을 전시한다.

이 밖에도 광주시는 민간분야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북한의 유치원, 학교, 병원 등 취약계층 공동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신재생 에너지 자립마을 시범사업 시행도 검토하고 있다.

◇**농도 전남, 북한 기아 보듬는다**=농도(農都)인 전남은 굶주린 북한 아이들을 보듬는 사업을 중심으로 펼칠 계획이다.

먼저 지난 2007년 10월 준공한 평양 발효 콩 공장에 이은 제2공장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2008년 제방기계를 지원하고 2공장을 위해 2억원을 지원하려 했지만, 금강산 관광객 사망 사건으로 교류가 중단돼 결실을 맺지 못했다.

남북 땅갈 지역이 있는 상징성을 고려해 전남도와 함경북도가 협력하는 것으로 도는 산모와 불우이웃에게 미역과 쌀을 보내는 등 인도적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비 5억원을 들여 북한 산모와 영·유아 2000명을 대상으로 이유식 재료용 쌀 8000포대과 미역 8000세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완도군은 완도 김·미역·다시마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 지난 2006년 완도군은 완도산 미역 30t을 민간단체 주관으로 북한 동포에게 전달한 바 있다.

문화 교류도 추진한다. 9월 개막하는 ‘2018 전남 국제수목비엔날레’에 북한 작가와 작품을 초청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청탁금지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하나로마트 양재점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코너에서 한 직원이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무 관련 있는 공무원 조의금 5만원 넘어선 안돼 농수산물 해당 화환·화분 선물 10만원까지 허용 교직원 외부강의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수 있어

김영란법 개정 일문일답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요 내용에 관한 문답 풀이를 내놓았다. 정부는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췄다. 직무 관련 공무원과는 상품권 선물을 아예 주고받을 수 없도록 금지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포함된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줄 경우 얼마까지 가능한가.

▲사교·의례 목적으로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그 외 선물의 가액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7

만원짜리 일반 선물과 3만원짜리 농수산물 선물을 함께 주는 것은 안된다.

-알고 지내는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보내면 얼마까지 가능한가.

▲직무 관련이 없다면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이 있다면 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는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조의금이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조의금 7만원과 3만원짜리 화환을 주는 것은 안된다.

-출판기념회, 승진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선물은 얼마까지 허용되나.

▲화환이나 꽃 화분은 농수산물 선물에 해당하기에 사교·의례 목적으로 10만원까지 가능하다.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5만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

로 제공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5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안된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는 가능하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공무원·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직급과 관계없이 시간당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시간 넘게 강의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즉, 3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사례금은 6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이 외부강의를 하면 사례금 상한선은.

▲시간당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가액 범위 안의 선물을 줄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인허가, 수사, 계약, 평가 등과 같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현재와 같이 일체의 음식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연합뉴스

文대통령 “소상공인 지원...최저임금 안착에 총력”

국무회의의 주제...“정부 운영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인·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부담을 느끼는 분이 많다”며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정부가 마련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전체의 23.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이라며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 이루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 3%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외형적 성장과 함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임금 격차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등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고 세밀하게 추진, 최저임금 인상을 안착시키는 데 각 부처가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2018년도 국정 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변화의 시작은 정부부터 좋아지는 것이고, 정부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 대상 국가 중 52위로서 전년 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촛불

혁명으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약속대로 2월까지 법정부적 혁신계획을 마련해달라”며 “정부혁신 방향은 국민이며, 국민이 정책과정 전반에 더 깊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사회적 가치는 인권·안전·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게 평가·인사·예산·조직 운영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사에서 예를 들자면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로,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부지원

농·어촌 태양광 사업안내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5년거치 10년상환, 년 1.75%가능

90% 융자지원사업 / 선택순접수

연금발전소

노후에는

태양광이 효자!!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99KW설치시 연금처럼 월250만원 고박고박 (25년동안 년평균 3,000만원)

▶ 실제 농·어업인에 한함(축산업 종사자 우선접수 합니다)

▶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1년이상 되어 있으신 분

NAVER

해가온에너지 검색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의료광고심의의결 제 17073-증-83321호

바름으로 다가서는

첨단우리병원

자켓을 입고 벗기가 불편한가요?

“팔이 뒤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깨 중점 치료

비수술적 주사 치료 및 관절내시경 시술은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쌍암 공원 앞 위치!

이문